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6〉

한번 얻었으면 곧 잊어라

학승이 물었다.
"순일(純一)하고 무잡(無雜)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거참 훌륭한 질문이야."

問 純一無雜時如何 / 師云 大煞好一問

무잡(無雜)은 때가 없고 잡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순일(純一)은 순수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잡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는 질문할 때이다. 질문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상대를 향해 궁금한 것을 묻는다. 질문자는 질문 후에도 답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놓는다. 이것만큼 순수하고 깨끗할 때가 또 있을까? 설명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훌륭한 자태 아닌가.

학승이 물었다.
"무위적정(無爲寂靜人)한 사람도 침공(沈空)에 떨어집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침공(沈空)에 떨어진다."
학승이 말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당나귀나 말이 된다."

問 無爲寂靜底人 莫落在沈空也無
師云 落在沈空

云 究竟如何
師云 作驢作馬

무위(無爲)는 '함이 없는 것'이다. 원래 이 용어는 도교에서 쓰던 말인데 불교에서 도교와 약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도교는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위를 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위를 사용하고 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사람을 무위적정인(無爲寂靜人)이라고 말한다.

말이 무위적정인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오르려면 대단히 많은 시간 수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무위적정인의 경지에 올라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경지에 오른 것인가? 아니다. 공(空)에 떨어진 것이다. 공에 떨어진 상태는 어떠한가? 장차 당나귀나 말과 같이 정신이 멍한 축생계에 떨어질 뿐이다.

무위적정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수많은 수행자들의 꿈인데 그것도 완전한 경지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것이 완전한 경지인가? 일단 무위적정에 들었으면 무위적정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을 마음속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한번 얻었으면 곧 잊어버려라.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세상일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아무 것도 주장하고 세우지 않지만,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주장과 선악시비(善惡是非)를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불교의 마지막 단계는 공(空)에서 나와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평범한 말을 하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상다리[床脚]이니라."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인 즉 빼내가거라."

問 如何是祖師西來意 / 師云 床脚是
云 莫便是也無 / 師云 是即脫取去

화두가 없는 학인은 선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답을 내려주거들랑 들은 즉시 깨달을 것이고, 즉시 깨닫지 못했으면 내려준 답을 몇 날 며칠이고 탐구하면 된다.

여기 〈조주록〉에 나오는 학인은 조주 스님이 '상다리이니라' 라는 것을 듣고 즉시 '그렇군요' 하고 이해를 해버렸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조사의 뜻은 우주의 근원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고 단정하면 벌써 그렇다는 모양[相]이 생긴다. 단정함으로써 어긋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그렇다[是]면 귀중한 것일 것이니 빼내가거라" 하고 핀잔을 준 것이다.

도대체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왜 '상다리'인가?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48 한국선과 선어록 18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

초의 선사의 선사상 담긴 책

〈선문사변만어〉를 저술한 초의의순(草衣意恂; 1786~1866)의 속성은 장(張)씨이고 자는 중부(中孚)이며, 법명은 의순(意恂)이다. 호는 초의 외에도 해옹, 해사 등 10여 가지가 있다. 전라도 나주 삼향 출신이다. 15세 때 나주 운흥사의 벽봉민성(碧峰敏性) 화상에게 출가했으며, 그 이후 해남 대둔산 대흥사의 완호윤우(玩虎倫佑)에게 구족계를 받은 뒤 초의라는 법호를 받았다.

이후 연담(蓮潭)의 제자 금담(金潭) 선사에게서 선지를 배웠다. 24세에 강진에서 유배생활 중이던 다산 정약용을 찾아가 그로부터 유학과 시문을 익혔다. 이후 초의는 유학과 선리에 두루 능통하면서 시와 서화에도 조예가 깊어졌다. 30세 때는 추사 김정희 등과 친분을 맺었다. 45세 때 〈만보전서〉에서 요점을 뽑아 〈다신전〉을 저술했다. 52세 때는 홍현주(1793~1865)의 요청을 받고 게송 형식으로 된 〈동다송〉을 저술했다.

55세 때 헌종으로부터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종사'의 시호를 받았다. 두륜산 일지암을 중창하고 40여 년간 이곳에서 정진하다가, 1866년 고종 3년 세수 81세 법랍 65세로 입적했다. 초의의 기타 저술로는 〈일지암시고〉, 〈일지암문집〉, 〈진묵조사유적고〉, 〈초의선과〉 등이 있다.

초의-백파 논쟁의 백파 주장에 자신의 견해 더해
선지식 입장에서 납자를 교화하는 방향에서 주장

저술 가운데 〈초의선과〉, 〈선문사변만어〉를 통해 그의 선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초의선과〉는 초의가 자신과 후학의 선 수행을 위한 교안으로 삼고자 저술한 것으로, 원제목은 〈선문염송선요소〉이며 40여 년 머물렀던 일지암에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간기가 없는 필사본으로만 전해오는데, 석용운이 편집한 〈초의선사전집〉에 수록돼 있다.

〈선문사변만어〉는 백파의 〈선문수경(禪文手鏡)〉에서 주장하는 선리에 대한 일종의 반박 내지 초의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 것이다. 사변(四辨)이라는 말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초의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결국 백파의 견해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그 첫째는 삼종선에 대한 이종선의 주장이다. 곧 백파가 조사선(祖師禪)·여래선(如來禪) ·의리선(義理禪)의 삼종선(三種禪)을 주장한데 대응해 초의는 전통적인 해석에 근거해 조사선인 격외선과 의리선, 즉 여래선의 이종선(二種禪)을 주장했다.

둘째는 인(人)을 기준으로 한 의리(義理)와 법(法)을 기준으로 한 격외(格外)에 대한 주장이다. 백파는 여래선과 조사선을 격외선으로 간주한 바탕에서 중생이 수행하고 깨우쳐 성불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리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초의는 인(人)과 법(法)의 구분을 기준으로 해 인(人)의 입장에서는 격외선을 내세우고 법(法)의 입장에서는 의리선을 내세웠다.

셋째는 일심에 대한 진공과 묘유에 대한 주장이다. 백파는 제법을 분별해 묘유의 삼구를 설명했고, 필경공을 설해 진공일구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선에서 가르치는 대의는 진공묘유와 대기대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진공과 묘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묘유는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고, 진공은 절대 진리의 공한 인연법인 불변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초의는 진공은 유에 즉한 공이어야 하고, 묘유는 공에 즉한 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초의는 진여의 입장을 바탕으로 진공과 묘유를 전개하고 있다.

넷째는 살인도(殺人刀)와 활인검(活人劍)의 적용에 대한 주장이다. 백파는 살·활에 대한 변론을 삼처전심으로 배대한다. 제일처인 분반좌는 살인도만 있고 활인검은 없지만 제이처인 염화미소는 활인검과 동시에 살인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의는 이와 같은 백파의 주장에 대해 삼처전심의 선리를 모두 격외선지인 조사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살인도와 활인검을 분별할 수 없으므로 모두 긍정 혹은 모두 부정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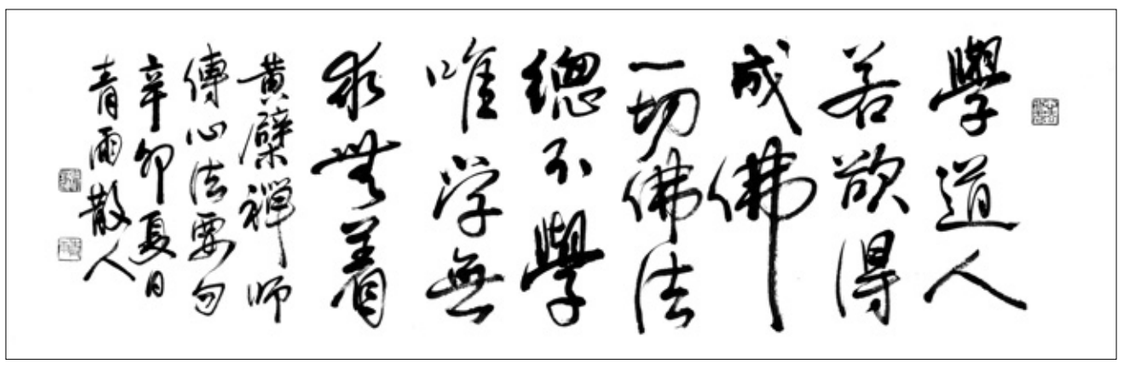
결국 임제삼구로부터 촉발된 그 선리논쟁에 대해 백파와 초의의 사상의 차이는 그 관점의 차이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임제삼구에 대해 향상문의 향상일규(向上一竅)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느냐, 혹은 향하문의 신훈삼구(新熏三句)를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느냐의 차이이다. 곧 백파의 경우는 납자의 입장에서 진여본분을 터득하려는 것으로 임제의 삼구를 차제적인 계위에 맞추어 끌어내렸다. 반면에 초의는 선지식의 입장에서 납자를 상대하려는 것으로 향하의 신훈에 중점을 두고 납자를 교화하는 방향에서 주장한 것이다. 이로써 백파가 〈선문수경〉에서 내세운 주장은 대용·수연·의리·활인검·묘유의 입장이라면 초의가 〈선문사변만어〉에서 내세운 주장은 대기·불변·격외·살인도·진공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임제삼구에 대한 백파의 견해와 그에 대한 초의의 견해는 이후로도 지속됐다. 곧 백파긍선의 〈선문수경〉의 주장에 대해 초의가 〈선문사변만어〉를 통해 반박한 내용에 대해 백파의 제자인 한성침명은 백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한성침명의 제자인 우담홍기는 〈소쇄선정록(선문증정록)〉을 통해 초의의 입장을 옹호했다. 다시 설두유형은 〈선원소류〉를 통해 다시 〈선문사변만어〉와 〈선문증정록〉에 대항해 백파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후 설두유형에게서 공부했던 축원진하는 〈선문재증록〉을 통해 이와 같은 선리의 논쟁이 선의 본래적인 입장을 벗어났다고 간주해 나름대로 조사선과 여래선에 대한 축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16 본래 구할 것이 없다



청신전황구유총일성약학
우묘심벽무학불체불욕도
산하법선착무학불 득인
인일요사 법
구

總: 다 총, 합할 총
唯: 오직 유, 누구 수
求: 구할 구
着: 붙을 착



본래 구할 것이 없다

學道人 若欲得成佛 一切佛法總不學 唯學無求無着(학도인 약욕득성불 일체불법총불학 유학무구무착)
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불법을 모두 다 공부하지 말라. 오직 본래로 구할 것 없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배우라. - 황벽(黃檗)선사의 '전심법요(傳心法要)'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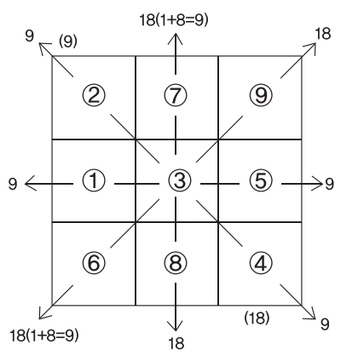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6개월]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 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토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금,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원증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